

‘개청 60주년’ 농진청... 3일까지 기념행사 열어

농촌 현안 해결 새 100년 연다

개청 60주년을 맞은 농촌진흥청이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농업과 국민 행복을 위한 2030 미래 비전과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새로운 100년을 맞았다.

농촌진흥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1일 전북혁신도시 분청 일대에서 ‘과거와 미래 상상을 현실로 연결(connect)하다’라는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오는 3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기념행사는 농업·농촌의 성장과 개청 이래 지속해 온 농업기술 개발·보급 성과를 재조명한다.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뜻에서 마련됐다.

조재호 청장은 기념사에서 “전 지구적 기후변화 위기와 함께 불안정한 국제경제와 재난 발생에 의한 식량위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개청 60주년을 맞아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필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때”라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농업의 융합은 기후변화 대응 식량 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라며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아직 출발 단계에 있는 만큼 우리도 충분한 성장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날 개청 기념식에서는 농진청의 2030 미래 비전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농진청은 농업·농촌의 현안 해결과 농업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조재호 농촌진흥청 청장이 1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농업기술박람회 동시 개최... 농기술 역사 '한눈에' 농업로봇 경진대회·공연 등 부대행사 '다채'

되기 위해 지능정보융합 농업 연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스마트농업 혁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과 데이터·정보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농업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용 인공지능 엔진’을 개발한다. 생명정보 기반 ‘그린 바이오농업’의 실용화도 앞당긴다.

농업인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토양·기상·작물생육·병해충 정보가 지리정보 기반으로 제공

되는 플랫폼체계를 구축한다.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 해결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악성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선제적인 재해대응기술을 개발해 탄소중립의 신 농업체계도 갖출 계획이다.

농촌지역 소멸에 대응해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데이터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작목 육성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농진청은 개청 6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2022 농업기술박람회’도 동시에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 맞는 농업기술박람회는 농업기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볼 수 있도록 농업생명관, 스마트농업관, 지속가능 농업관, 케이(K)-농업기술관, 지역특화농업관, 청년농업관, 농산업관, 농업과학관 8개 주제관으로 꾸며진다.

이밖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우수사례 전시 △청년농 아이디어 경진대회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 등 젊은이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농업·농촌의 가치를 국민이 공감하도록 소비 트렌드 발표대회와 특화기술 장터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중계해 참가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박람회 기간 오케스트라 공연, 탄소 저감 체험, 누리 소문망(SNS) 참여 등 기획 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진다.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개청 60주년 기념식과 유튜브 방송은 온라인(www.농업기술박람회.kr)을 통해 제공한다.

조재호 청장은 “농진청은 불가능해 보이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낸 선배들의 담대한 도전정신을 되새기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농업혁신 60년, 국민 행복 100년의 새로운 출발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애정으로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정부 새만금 사업 예산 8359억원

새만금개발청, 트라이포트 등 주요 기반시설 구축 본격

내년도 새만금 사업 정부 예산이 8359억 원으로 결정됐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공항·항만·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 구축 본격화에 중점을 둔 이번 예산은 새만금 남북도로 1·2단계 완공,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및 새만금 신항만 건설 사업의 연차별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설계비 및 인입철도설계비 관련 예산도 반영되어, 향후 대규모 기반시설 건설이 본격화 되면 새만금 관련 예산은 증가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2단계 환경생태용지 조성 사업 등의 예타결과와 사업추진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남북도로 건설 외에도 계화 및 옥구 지역 내 상수도 시설의 차질 없는 구축을 위해 사업비

129억원을 증액해 총 169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가 국제과제에 반영되고, 군산시의 산업위기가 지역이 반영됨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장기임대용지를 추가로 조성하여 기업 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새만금건축박물관의 개관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법인 예산으로 40억 원을 반영했으며, 새만금 메타버스 관광플랫폼 구축을 위해 7억원, 문화예술공원 조성에 3억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새만금 관광인프라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농공단지 W-ink 캠페인’ 릴레이 홍보

전북여성새일센터, 8일까지

전북광역여성새일센터(센터장 전정희)는 오는 8일까지 7개 군에서 ‘농공단지 W-ink(윙크)캠페인’ 릴레이 홍보를 펼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들이 다수 재직 중인 직안, 무주, 장수, 인실, 순창, 고창, 부안 등 도내 7개 군 농공단지를 방문해 총 700명에게 커피처를 지원하고 재직여성의 고용유지를 응원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9월 7일 경력단절예방의 날 행사로, 도내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농담 사진을 활용한 홈페이지 및 SNS에 홍보를 한다.

또 경력단절예방 인식개선 온라인 퀴즈 이벤트도 실시한다. 오는 6일까지 센터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답자 발표는 7일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정답자 중 선착순 100명을 선정해 모바일



쿠폰을 발송할 예정이다. 전정희 센터장은 “이번 경력단절예방의 날 행사를 계기로 직장 내 불평등으로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가정과 기업 내 성평등 문화정착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취업지원팀(063-254-37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W-ink(윙크) : 여성(woman)과 일(work)의 앞글자 더블유(w)와 잇다(-ink)를 조합한 말.

쌀 온라인 판매 전용부스 운영

전북농협, 국민연금공단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일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최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에서 쌀 판매확대를 위한 온라인 판매 전용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판매부스에는 실물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QR코드를 활용해 네이버 쇼핑에서 간편하게 구입하고 원하는 장소로 배송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기준 80kg 산지 쌀값은 16만7,344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이상 하락했다. 이는 2018년 2월 이후 최저치이며, 낙폭은 45년 만에 최대치이다. 앞선데 달린격으로 식습관 변화 등 쌀 소비 부진으로 전년 대비 81% 가장 재고과잉 상황이다.

이에 전북농협은 지난 7월 쌀 산업 기반 유지와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전북 쌀 100만포 소비촉진 운동을 선포



하고 ‘하루 두 끼는 밥심으로’를 캐치프레이즈로 다양한 쌀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여 쌀값 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올해 농자재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가 생산비가 크게 증가된 반면 수확기 비가 잦아 하락이 예상돼 농업인이 절망하고 있다”며 “농업인을 위해 도민들께서는 최소한 하루 두 끼 식사는 밥을 소비하여 주시고 추석 선물은 전북 쌀을 이용해 쌀 소비 촉진이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재훈기자

남원 농어촌공, 울 54억 투입 농지매입 진행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충호)는 올해 농지매입 사업비 54억원을 투입해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농지를 청년창업농과 2030세대에게 농지를 우선적으로 임대하는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전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상속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장기임대를 통해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남원지사에서는 농지임대 시 관내 청년창업농인 및 2030세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및 전입농업인 등에게 5년간 타작물 재배를 원칙으로 임대 시행 중이다.

매입농지는 농지은행 사이트(https://www.fta.or.kr)에 접속하여 농지거래농지은행 매물조회를 검색하면 지역별 임대가능 농지를 조회할 수 있고,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진흥지역 밖 농지이며,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매입 상한액은 남원관내 3만원/㎡(평당 9만9,200원)으로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되고, 필지 당 1,000㎡ 이상이 면 매입이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남원지사를 방문하거나 지사(063-620-2030)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북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일간 유니콘 스타트업 투자행사 ‘2022 전라북도 투자판팡위크’를 성황리에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전북 대표 스타트업 투자행사 ‘발돋움’

‘2022 투자판팡위크’ 성료... 메이커 문화 확산 등 행사 다채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일간 개최된 유니콘 스타트업 투자행사 ‘2022 전라북도 투자판팡위크’가 전라북도 대표 스타트업 투자 행사로 발돋움했음을 알렸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은 전라북도 투자판팡위크는 전북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효성, 전북은행,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총 32개 기관이 협력해 운영하는 도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행사다.

전라북도 투자판팡위크는 도내 전략산업 중심 우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국내·외 벤처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지난년부터 시작했다. 이후 도내 투자자, 기관, 기업의 긴밀한 협업 아래 투자하고 싶은 전북 브랜드 및 투자 성공사례를 도출해 벤처투자생태계 활성화와 혁신 창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전북 투자자의 밤’은 올해 처음 선보인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기업과 투자자의 자유로운 만남으로 투자역량을 높이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시켜 벤처투자와 혁신창업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일 전북도민, 예비·초기창업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펼쳐진 특별강연은 평소 낯설게 느껴졌던 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 됐다. 투자의 이해 라는 대주제 아래, 청년창업가 치열업코리아 신경석 대표의 도전과 주체적인 삶’ 강연과 경제전문가인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교수의 ‘코로나 19 이후 돈의 흐름이 바뀌다’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어서 열린 2022 전라북도 투자판팡위크 공식행사에서는 주요 3개 프로그램에 대한 시상식과 스타트업 전문미디어인 쿠키미디어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업무협약식 및 투자 협약식이 이어졌다.

또한 벤처투자 마중물인 개인투자조합 1호의 투자펀드 결성식이 있었다. 벤처기업협회와 전북벤처기업,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총 2억원을 출자, 향후 5년 내에 전북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70% 이상을 투자하게 된다.

전라북도 투자판팡 행사장에 58개사 투자자 81명의 스타트업이 오프라인으로 참여, 메이커 문화 확산과 투자, 판로개척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특히, 한국창업기업가정신재단과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운영된 소셜 임팩트 레시포 클럽(토크 콘서트)에서는 지역이 품고 있는 문제(지역소멸)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 해야 할 노력과 현재 지역소멸 해결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 소셜벤처 기업의 사례를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전라북도 투자판팡위크 참여기업은 행사 후 전국 최대 온라인 투자 매칭 플랫폼인 넥스트 유니콘을 통해 1,800여 명의 투자자와 온라인 투자매칭 기회를 제공받고, 2022년 전라북도 창업대진과 연계한 후속 프로그램도 함께할 예정이다.

김종훈 정무부지사는 “민선 8기를 맞아 도민경제 부흥을 위하여 기업유치, 민간투자 촉진이 힘쓰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전북경제를 회복시키고, 주력산업 대전환, 신산업 육성과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 창업,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행·재정적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